

고딕 : 가톨릭+자연숭배사상

고딕의 내력 :

프랑스 BCE 900부터 켈트인 거주
BCE 500 케사르 점령 Civitas(중심도시 집락) 통치제도
bourg bougeois
313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 인정
392년 테우도시우스 기독교 국교화
대성당은 키비타스에 건설
476 서로마제국 멸망 (주교가 다르시는 키비타스만 살아남음)
처음에는 ecclesia라고 부름
8세기: 다른 예배당과 구별 위해 ecclesia cathedralis로 불림
12-13세기: 고딕 양식의 대성당 (북예배당, 서예배당, 세례당의 집합체)

고딕의 시대 시작

고딕 건축의 특징

생드니 수도원 개축하면서 등장
처음으로 대성당에 적용한 것은 Sens의 생테티엔느 성당 개축 시.

1. 천정에 포인티드 아치(첨두 아치),
2. 벽 옆면 큰 창(스테인드글라스의 신비로움),
3. 플라잉 버트레스와 버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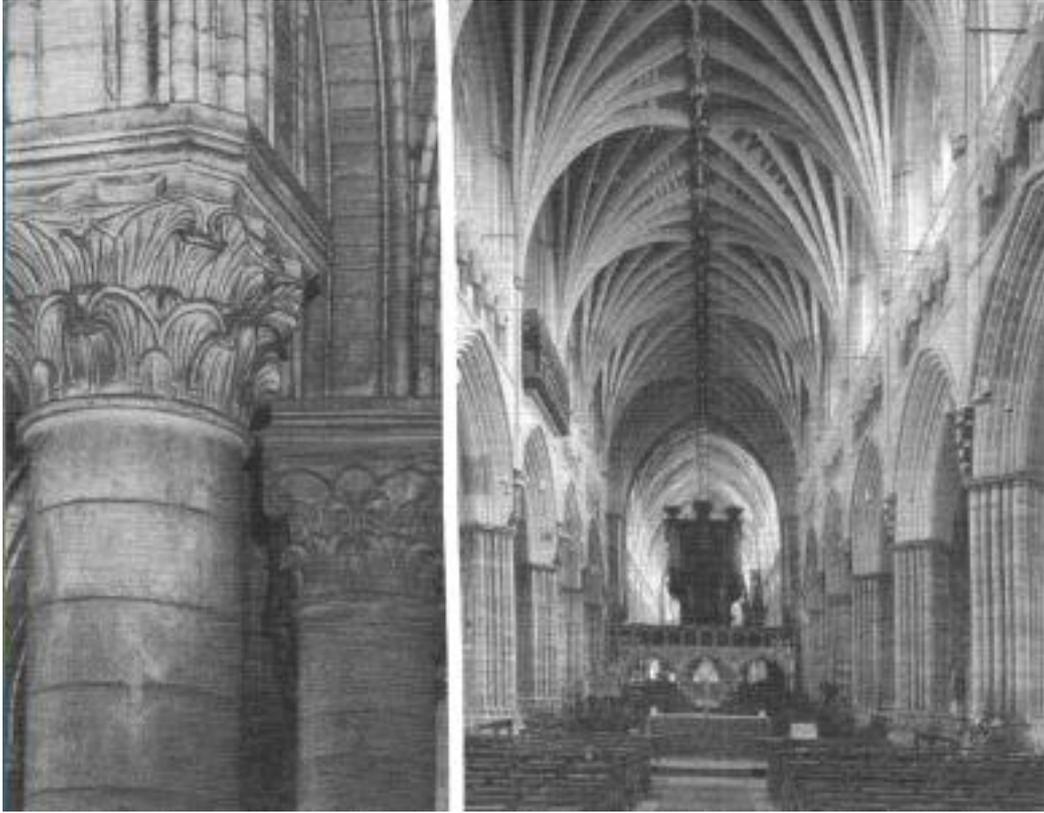


그림 1 노트르담 기둥머리 엑세터성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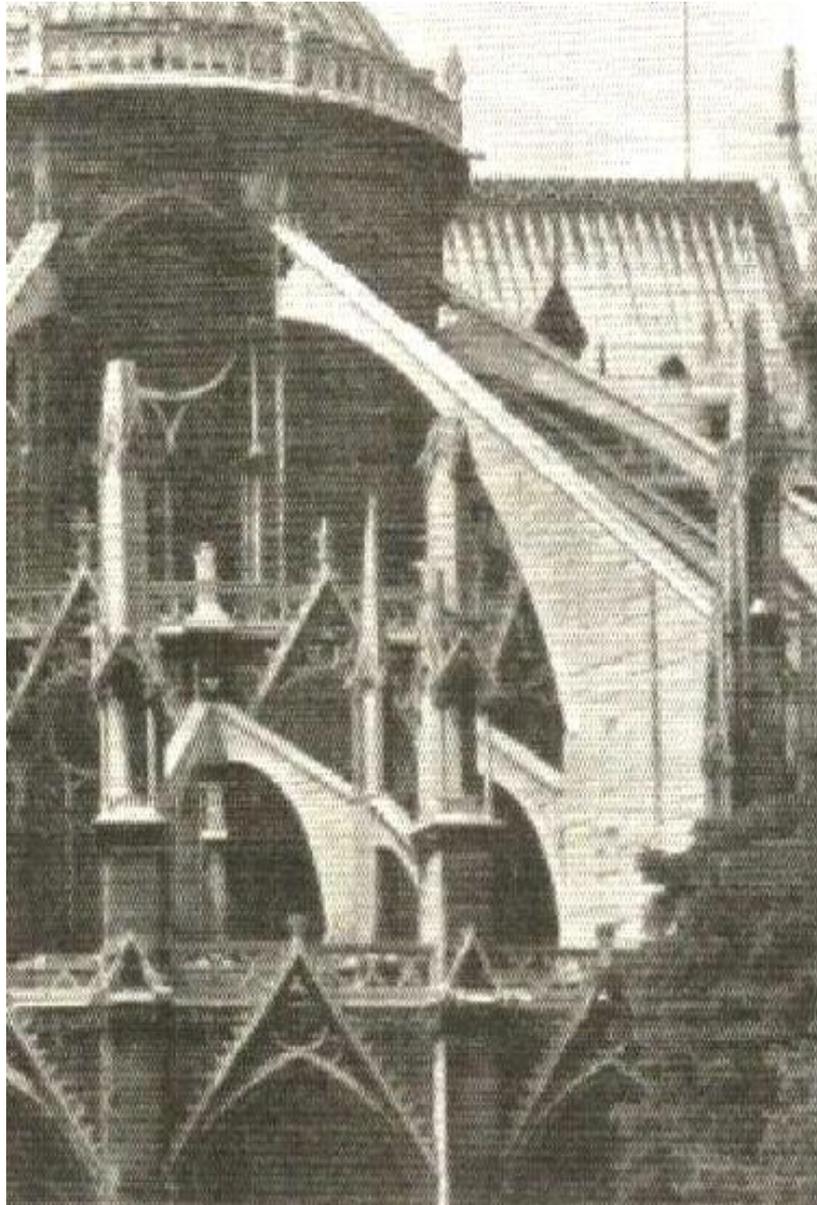


그림 2 노트르담의 플라잉아치 플라잉버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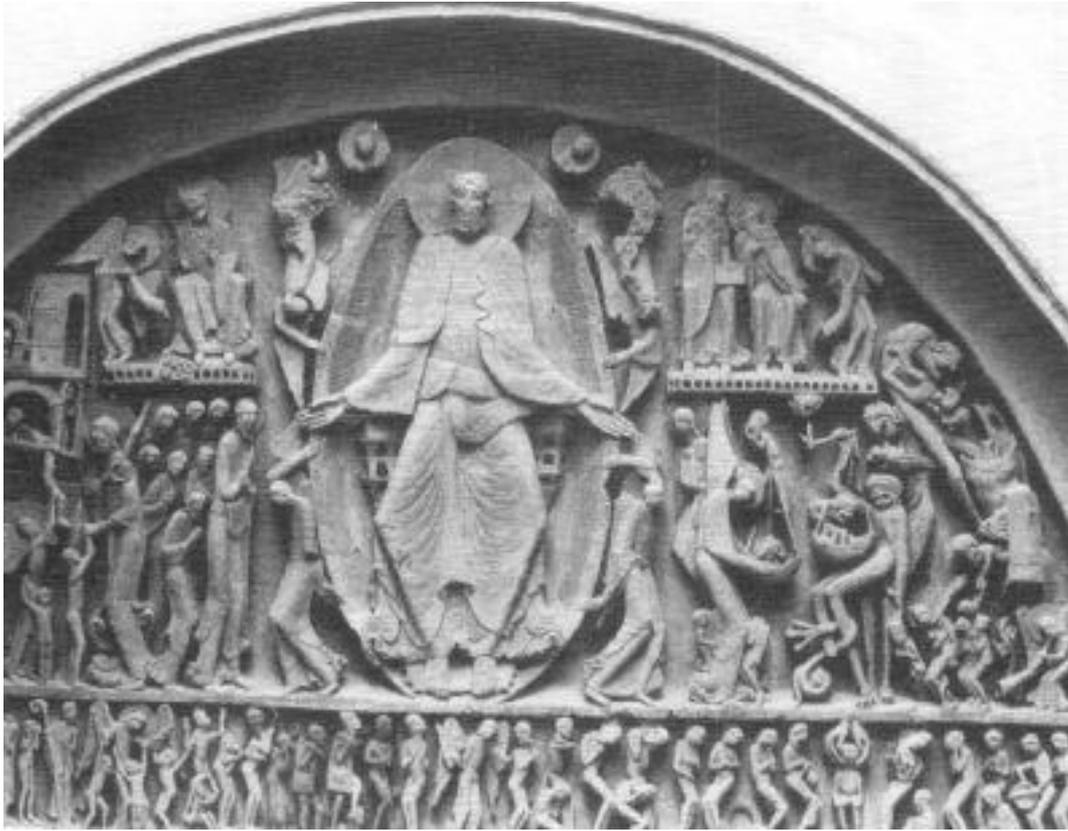


그림 4 서쪽 파사드 тим파눔 최후의 심판

고딕이라는 말의 유래

12세기 고딕 양식은 *opus modernum*, *opus francigenum*이라 불림.
15-16세기 이탈리아인들이 알프스 이북에 전파된 건축양식을 고딕이라 부름
고트인 : 게르만 : 서로마제국 습격 서고트(스페인), 동고트(이탈리아)
프랑스와 무관.

고딕의 탄생 : 자연과 기독교의 만남

대자연에 대한 동경 : 북프랑스의 자연

이슬람의 침입 우려 상황, 요한계시록에 의지,
악이 침입해 올지도 모르는 부조리한 상황에 의미 부여
최후의 심판 그림과 조각에 희망을 걸다: 9세기 수도원에서 시작, 대성당 장식
수도사들의 대개간 사업 : 1050년 시작 1150년 정점을 이루고 1300년 중단



그림 5 개간사업 수사들 14세기 시본 삽화

농업혁명: : 바퀴달린 쟁기, 소나 말에 수레 매는 방법, 말발굽
90%는 비기독교인

서구 그리스도교화 시기 : 16세기 초반에도 불안

당시 민간신앙의 대상: 울창한 숲, 거대한 나무, 샘, 바위 동굴
혹은 나무사이로 흐르는 바람

농업혁명 후 숲의 소멸 : 도시로 이주 경향

성모 마리아 '노트르담 Notre-Dame': 교회 정식 명칭에는 없다.

도시인의 불안 : 이방인 집합소

성모마리아 신앙 유행: 마리아가 키스만으로 잉태되었다는 신앙

성모마리아의 죽음, 승천, 대관 부조 유행 " 외전

동지 : 태양신 미트라와 탄생일 예수 탄생일로 정함(이전에는 1월6일)

고딕은 숲의 전당 내부 구조는 숲,

그 숲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빛(스테인드글라스)

보이지 않는 것을 근원적인 분위기, 움직임, 생명감을 빚어냄

죽음과 웃음의 성스러운 성격

알비 생트 세실 대성당의 프레스코 <최후의 심판> : 지옥의 무서움과 성스러움
별거벗음, 간절함, 고통
대부분 지옥이 걸작이 많다: 실락원을 노래한다.
에덴은 매력의 대상이 아니다
작가들의 상상력 대단하다 이미 선악의 대립 벗어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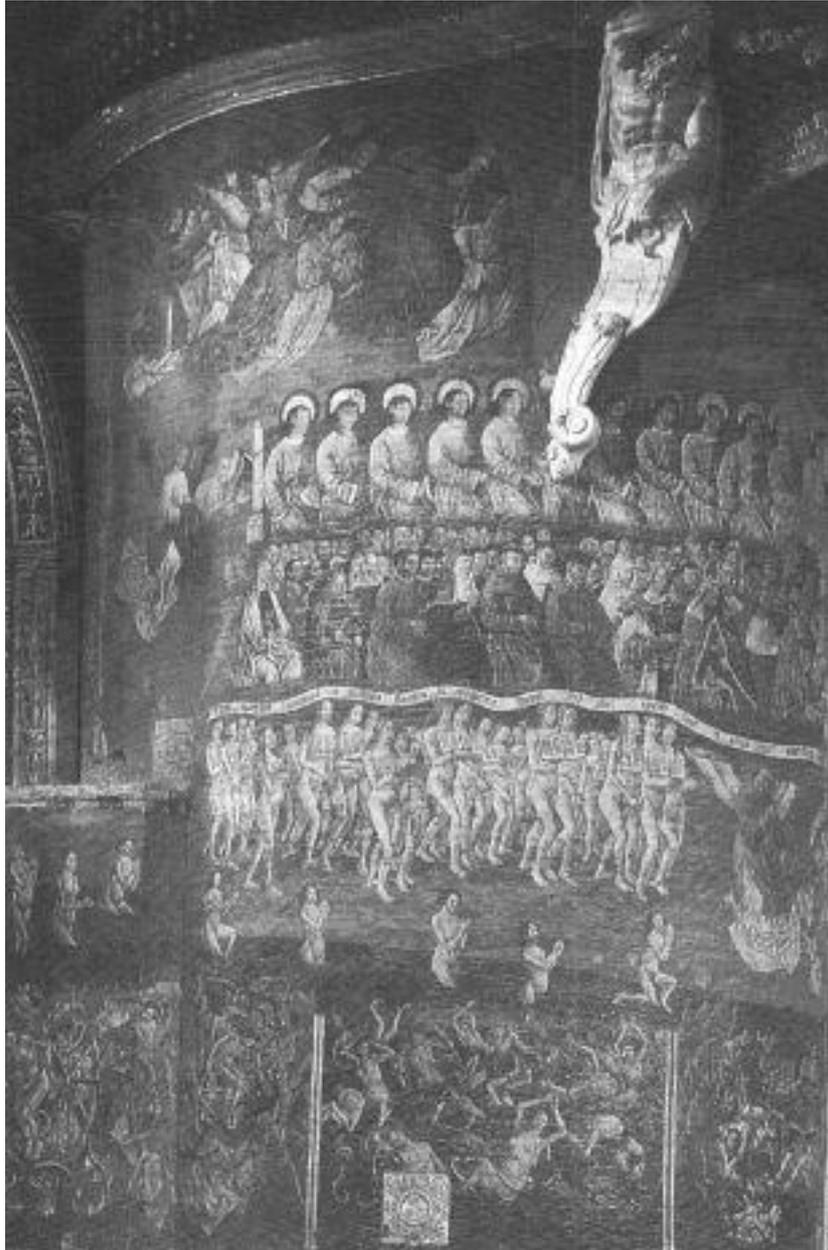


그림 6 생트 세실 대성당 프레스코 최후의심

성스러움의 근원: 두려움과 불가사의함

종교의 근원: 희생

공동체를 위한 희생(供犧) : 성체의 제의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존재와의 연대감

12세기 이전, 승리의 그리스도



그림 7 승리 예수 12세기 초반. 카탈루냐 미술관



그림 8 고뇌하는 예수 샤르트르 대성당 1150

눈이 감기고, 머리는 옆으로 뉘고,
팔다리 힘 빠지고, 거의 나신, 온몸에 못이 박혀,
옆구리 피를 흘리는 예수

예수의 부활이 아닌 예수의 수난
공희의 희생물의 생생한 모습

괴물들과 성스러움의 공존



그림 9 선악의 공존 로마네스크 켄터베리 대성당



그림 10 노트르담 가고일



그림 11 엑세터 성당 나뭇잎인간

고딕 : '죽음의 자각' < 라스코 동굴인
 상승 지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비소함·왜소함·유한성에 대한 자각.
 인간을 초월한 카리스마적인 힘에 대한 동경
 초인간적인 힘에 의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

당시 사람들은 문자를 몰랐다
 라틴어 기도 역시 못 알아 들음
 성당은 교리 전도의 의미를 넘어섬
 즉 기호를 넘어선 이미지의 보고
 현대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눈으로
 저 성당 높은 곳의 조각(20m~51m)
 창으로 들어오는 빛(신의 말씀: 요한복음 1장1절)
 “태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스테인드글라스의 그림이 전하는 말을 알아 봄
 기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실체를 지시
 지식의 실체는 신이나 성인과 같은 인격적 존재
 선 같은 도덕적 관념
 stop 표시판 같은 명령의 의미
 하지만 예술로서의 이미지는 지시 관계가 아니다
 예술자체가 성스러움

성스러움의 근본 : eros=종교와 예술의 토대 < 동굴 사제의 성기
나와 너의 경계 넘어
우리가 되기 위한 나의 발가벗음
공희의 희생물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체들의

대성당 숲이라는 신전의 복원
(면죄부를 얻는 곳, 권위의 상징)
만인과 만물의 공동의 공간
이미지의 복합체



그림 12 <성녀 테레사의 범열Estasi di Santa Teresa d'vila>
(1647~52). 불쌍한 신과의 교감에서 오는 종교적 희열을 절정의
에로티즘으로 조각한 베르니니의 성녀상(350cm. 코르나도예배실,
산타마리아 델라비토리아성당, 로마).

현대의 고딱



